

광주시철도 2호선 50억 증액·순천만 생태복원 15억 반영

광주·전남 내년 국비사업 세부 내역

내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 광주·전남 주요 현안 사업비가 대거 반영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시의 국고예산 지원 규모는 1조7332억원, 전남은 5조588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의 경우 2015년 확보액(1조6584억원)보다 748억원(4.5%)이 늘었고, 전남은 전년 확보액(5조3247억원)보다 2637억원(5%)이 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세출 기준)을 당초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 순삭감한 386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광주시=국회에서 새해 사업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30억원)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스테이션 실증사업(20억원)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20억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15억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센터 설립(4억원) ▲호남직업진로체험센터 설립(10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개발 및 운영 80억원(493~573억원)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10억원(20~30억원) 등이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 386조 4천억

광주 1조 7332억원

전남 5조 5884억원 편성

한편,윤장현 광주시장은 3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 정치적 역량을 모아준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전남 국회의원, 시의원들의 전폭적인 성원 결과”라며 “광주가 한 요구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받아준 정부와 새누리당에 또 머리 숙여 감사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중단됐던 남해안철도(목포~보성) 사업비 500억원,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사업비 108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1600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목포~보성 간 남해안철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3대 대형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이 본격 착공됨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 활기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2020년 목포~부산을 연결하는 남해안 철도가 연결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호남 동서 교류 촉진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본격적인 남해안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3기 설치 지원으로 갈수록 대형화되는 선사 수요에 맞춰 광양항의 경쟁력도 갖춰지게 됐다.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56억원)과 전남 뿌리기술지원센터 기반 구축(35억원) 예산 반영은 첨체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연관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전남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견인할 전망이다. 동서통합시대 조성사업의 선도사업인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기반조성사업(4억원)은 국민대통합을 위한 균형발전차원에서 줄기차게 반영 요구한 결과 비로소 첫 출발을 하게 됐다.

이밖에 ▲순천만 갯벌 생태복원 사업 15억원 ▲우주항공부품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10억원 ▲신안 신장~북룡 간 국도 건설 5억원 ▲해남 육전~강진 도암 간 국도 건설사업비 3억원 등도 국회 본회의에서 반영됐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400억원), 여수~남해 간 도로(동서해저터널건설, 5040억원) 등은 반영되지 못해 향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예산 처리 막전막후

“달랑 5000만원 제시 ‘車 100만대’ 오기로 밀어 붙여”

광주·전남 유일 예결위 예산소위 행철약 권은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산 을)이 국회 예결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위원으로 맹활약, 내년도 광주·전남지역 국고 예산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4년 보궐선거로 국회에 진입한 새내기 초선인데다 상임위도 국방위라는 점에서 과연 지역 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느냐는 우려도 컸다. 하지만, 권 의원은 정부 여당과의 예산협상 과정에서 논리적 접근과 강단 있는 행보로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을 대부분 챙기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일보 3일 국회에서 권 의원을 만나 이번 ‘예산 전쟁’에서의 성과와 소회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예산 전쟁이 마무리됐다. 성과는 ▲전년 대비, 광주는 4.6%, 전남은 5%의 국고 예산이 늘어났다.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3% 증가한 것에 비해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광주는 세계수

영선수권 대회,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예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 조성 사업 등 논란이 컸던 사업 예산을 각고의 노력 끝에 반영했다. 전남은 신규사업예산이 46건이나 반영됐다.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지원 사업,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남해안 철도고속 사업,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가장 어려웠던 사업 예산은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 조성 사업과 수소융합스테이션개발 사업 두 가지 사업 예산으로 기재부에서 기획비 5000만원을 제시했다. 오기가 생겼다. 사활을 걸고 밀어붙여 두 가지 사업 예산 모두 반영했다. 광양항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사업은 부산항을 의식한 듯 정부의 반대가 심했다. 국비 반영에 반대했지만 전통 끝에 관철시켰다.

—광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사업 예



산이 눈에 띈다.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을 느낀다. 50년 만에 무등산이 말 그대로 온전한 모습을 되찾게 됐다. 5년 이내에

방공포대 이전이 마무리될 것이다.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진다. —당 차원의 지원이 있었나 ▲당론 차원의 접근 등 특별한 지원이 없어 섭섭했다. 하지만 이종걸 원내대표와 해남 출신의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강력한 측면 지원에 나서 상당한 도움이 됐다. —소회가 있다면 ▲정부 예산 확보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 이번 예산 국회에서 광주시, 전남도와의 소통이 잘 이뤄졌으며 타 지역 의원들이 부러워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신규사업

사업명	사업비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30
수소및전기자동차 융합충전스테이션 실증	20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20
무등산방공포대이전(설계비)	15
호남직업진로체험센터	10

■광주시 주요증액사업

사업명	정부안	증액	최종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개발 및 운영	493	80	573
상무지구 ~ 첨단산단간 도로개설	21	31	52
도시철도 2호선 건설	84	50	134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	15	10	25
차세대 DC전기전자산업 육성	16	24	40

■전남도 신규사업

사업명	사업비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108
해양 안전기념관 건립	44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기반 구축	40
체감형 게임센터 구축 및 운영	30
순천만 갯벌 생태복원 사업	15

■전남도 주요증액사업

사업명	정부안	증액	최종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목포) 건설	1,100	500	1,600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250	250	500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265	180	445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0	56	56
전남 뿌리기술 지원센터 구축	25	10	35

예산안 매듭 최경환 당 복귀 초읽기...후임 임종룡·김광두 등 거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제 부처의 시선은 이제 박근혜정부의 3기 경제팀을 이을 새 경제부총리 인선에 쏠리고 있다.

작년 7월부터 2기 경제팀을 이끌어 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새누리당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다.

3일 관가 소식통들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당분간 개각이

없다”고 청와대가 선언한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개각 문제가 재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선 9일을 전후해 경제부총리를 포함하는 부분 개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군을 놓고는 이런저런 얘기가 무성할뿐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보성 출신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와대 수석들의 이름은 자주 거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 외에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신현승 국제경제은행(BIS) 수석 이코노미스트,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광주 출신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신재운 전 금융위원장도 거명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지원 의원



이정현 의원



장병완 의원



박혜자 의원

박지원 “목포시 관련 786억원 증액”

이정현 “전남 3대 SOC 본격화 의미”

장병완 “광주 3대 사업 끈기로 반영”

박혜자 “전당예산 확보 광주시당 총력”

광주·전남지역 국비예산이 3일 최종 확정되면서 예산 확보 과정에 대한 뒷얘기가 무성하다. 특히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 처리하기로 하면서 관련 의원들의 역할도 막중했다.

당 안팎에 다양한 인적네트워크가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예산안 통과 후 “내년 목포시 관련 예산 786억원을 증액시켜 총 3098억원을 확보했다”며 “국회 예결위원,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목포시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득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 처리시한 하루 전까지 쟁점법안과 예산안의 연계처리 문제를 두고 국회가 공전하고 있을 때 여야 지도부 및 최경환 부총리와 접촉해 이견을 조정하고 내용을 설명해 협상을 타결함은 물론 목포 예산을 증액하는 부수적 효과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의 유일한 지역구 여당 의원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지역 예산과 관련, “그동안 거의 중단돼 있던 전남 3대

SOC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광주도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와 세계수영대회 등 지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또 “광양항 대형컨테이너 크레인 3대 설치 예산을 반영해 광양항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직업체험관인 집월드 예산을 ‘호남에 설치한다’는 조건을 넣어 반영시킴으로써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장관 출신인 장병완 의원은 “광주 3대 핵심사업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어서 2일 오전까지 반영되지 않았지만 법률적 문제 및 행정의 연속성 등을 논리로 기재부를 적극 설득해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장 의원은 관련 공직자들과 긴박한 통신을 주고받으며 막혔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당위원장인 박혜자 의원은 “광주시 3대 현안사업은 사사건건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여당은 쟁점법안 처리에 우리 지역예산은 불모로 잡는 등 내년도 지역현안 사업들의 원활한 진행은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주시, 그리고 시당은 총력전을 펼치면서 긴박하게 대응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레이저백내장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정확도와 안전성이 현저히 높은 최첨단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입니다. 3D OCT가 탑재된 펄스제너레이터를 사용해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빠르고 오차 없는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無충혈 / 無통증 / 無봉합 / 無입원이 가능하며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도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바른광주안과

의료령고심의원 제150204-증-68156호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